

거골의 골연골 손상의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후 MRI와 관절경 소견의 비교

Correlation between MRI and Arthroscopy after ACI of OLT

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,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방사선과*, 국군 함평병원 정형외과†

이경태 · 최윤선* · 이영구 · 김진수† · 양기원 · 박신이

❖ 서론

거골의 골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술 후 1년의 MRI와 관절경 소견을 비교하고 향후 MRI와 관절경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.

❖ 대상 및 방법

2005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거골의 골연골 손상이 있는 2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들은 모두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을 시행받았고, 술 후 1년에 MRI와 관절경 검사를 시행받았다. 모든 연구는 전향적 연구로 진행하였다. 경과에 대한 평가는 AOFAS 점수와 VAS, 및 Hannover 점수로 평가하였으며, MRI와 관절경 검사의 비교는 MOCART (Magnetic Resonance Observation of Cartilage Repair Tissue) 법으로 시행하였다. 통계는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법으로 시행하였으며 95%로 신뢰 상한선을 정하였다.

❖ 결과

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35.6세였고, 남성이 19명, 여성이 5명이었다. 관절경 소견과 MRI를 비교하였을 때 점수로 비교하였을 경우 VAS는 -0.7768 ($p < 0.0001$), AOFAS는 0.5200 ($p = 0.0157$), Hannover는 0.2835 ($p = 0.2130$) 소견을 보여 연관성은 VAS에 대해서만 나타났으며, AOFAS와 Hannover에서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고, 변화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VAS는 0.5566 ($p = 0.0088$), AOFAS는 -0.3418 ($p = 0.1294$) 였으며, Hannover는 -0.4274 ($p = 0.0533$)로 변화량 역시 VAS에 대해서만 통계적 연관성을 보였다.

❖ 결론

거골의 골연골 병변에서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후 시행한 MRI와 관절경적 소견을 비교할 때 VAS에서만 연관성을 보였으며, AOFAS와 Hannover에서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.